**흑연같이 살 테다**

**20160042 구인용**

꿈이란 걸 생각해본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다. 오늘 나의 하루는 내일의 과제로 채워 넣기도 바쁜데, 어떻게 꿈 같은 막연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단 말인가. 짜인 일정만 27시를 넘겨버리는 이 지독한 일상 속에서 나는 매일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지만 정작 꿈꿀 시간은 주지 않는다 – 이것이 KAIST라는 학교가 가진 비극적인 모순이다.

물론 나는 이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안다. 이 학교 안에도 분명한 목표와 주 단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생존조차 버겁다. 설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는 상황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나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너무 많다.

아들, 오빠, 친구, 선배, 학생, 동아리 회장…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자신을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사람인지라 나에게는 이런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채우며 살다 보면 결국 꿈이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꿈이 없다’는 것이 서글퍼지곤 했다.

지난 학기, 동아리 행사를 일주일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며칠째 밤을 새운 뒤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지 않으려고 혼자 엄청 삭이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양과목 교수님께서 에세이 과제를 얹으셨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짧은 탄식이 나왔다. 그걸 놓치지 않은 교수님은 안쓰럽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그리곤 “Pressure makes a diamond”라는 격언을 가져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그토록 듣기 싫을 수가 없었다. 교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묘한 반항심이 꿈틀대는 것이었다.

기숙사에 와서 글을 썼다. ‘누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하던가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었다. 내가 이 “pressure”, 무거움을 견디는 이유는 ‘어떤 것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흑연이고 싶다. 빛나지 않더라도 쓰이고 싶다. 문대고 비비면 흔적이 남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글을 전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화가 천천히 식었다.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줄 수 있는지가 보인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곧,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막연하게 꿈이라고 불렀던 것들도 그랬다. 대통령, 선생님, 좋은 아빠. 누군가의 꿈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 나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목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표와 같은 것뿐이다. 오랜만에 푹 잔 것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 잘살고 있는 거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피곤함은 내가 잘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나는 계속 흑연처럼 살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 지기로 했다. 나의 부족함이 예민함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찌르지 않게, 이 정도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나를 변성시키지 않게, 흑연으로 남되 너무 쉬이 닳아버리지는 않게. 이 무게를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천근같이 무겁고, 천금같이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말이다.